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36호

스포츠 인권 & 성평등

‘최속현 비극 막자’던 스포츠윤리센터, 10건중 7건은 각하...이유는?

조해람, 조문희 경향신문 기자

여성과 스포츠

김주혁 미디어파인 주필

스포츠 폭력

학폭 선수, 앞으로 실업·프로팀은 물론 국가대표 활동도 제한

양승현 머니S 기자

‘과거 학폭’ 이재영-다영, 안우진 징계할 수 없다...정부 새규정에 ‘화난 팬들’

이석희 마이데일리 기자

스포츠 미디어

안산 선수 7점 쏘자 KBS 중계진 “최악이다”

김혜인 미디어스 기자

기타 스포츠 뉴스

연세대 아이스하키 코칭스태프, 선수들에게 욕설과 막말 논란

“체육진흥공단은 경륜선수 소모품 취급 중단하고 처우 개선해야”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www.sportscm.org

‘최속현 비극 막자’던 스포츠윤리센터, 10건중 7건은 각하...이유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최속현 선수의 비극을 막기 위해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접수된 사건을 10건 중 7건 꼴로 각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관들의 부족한 역량 때문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본격 가동된 지난해 9월2일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처리한 사건 157건 중 68.8%인 108건이 각하됐다. 징계요청은 31건(19.7%), 수사의뢰는 6건(3.8%)에 그쳤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등을 전담해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법인이다. 고 최속현 선수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출범했다. 지역 체육회부터 학교 운동부까지 체육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하지만 정작 접수된 사건의 각하율은 정부 산하 조사기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 산하 5개 조사기관(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처리 사건 대비 각하율은 평균 27.7%였다. 조사관 1인당 연평균 처리 사건 수가 109건인 국가인권위원회(62.9%)보다도 스포츠윤리센터의 각하율이 더 높았다. 스포츠윤리위원회 조사관은 17명으로, 지난 1년간 1인당 처리 사건은 평균 9.2건이다.

조사관들의 역량 부족이 높은 각하율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들의 12%인 2명만 타 기관에서 직접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해 본 경력이 있다. 88%는 조사와 무관한 스포츠행정, 기업 경영관리, 시민단체, 교육행정 등 업무 경력자였다. 임 의원은 “스포츠 인권 및 비리 조사는 매우 특수한 분야라 고도의 조사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조사관이 술을 사주며 각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전직 경찰 등을 전문조사원으로 고용해 이중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조사관들은 건당 25만원의 조사수당을 받고, 조사결과서까지 작성할 경우 45만원의 수당도 받는다. 사실상 전문조사원들이 조사 업무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인데, 이 모든 비용을 더하면 지금까지 전문조사관에게 지급한 비용은 약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임 의원은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 구조는 너무나도 잘못된 역피라미드 구조”라며 “비효율적인 역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컨트롤타워형 구조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사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스포츠분야 전문 조사관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과 스포츠 [김주혁 칼럼]

여성이, 내 딸이, 운동을 하고 싶다고, 아니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해도 괜찮을까? 체조, 피겨스케이팅,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처럼 '우아해 보이는' 운동 말고 체력 소모가 크거나 신체 접촉이 많은 운동을 해도 좋을까? 여성 선수들이 남성과 달리 유독 노출이 심한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 방송에서는 왜 '미녀 선수'라는 표현을 자주 쓸까? 스포츠에는 성차별이 있는 걸까?

이런 궁금증과 관련해 여성과 스포츠를 주제로 다룬 영화들이 꽤 있다. 아직도 명예살인이 연간 1천 건 정도씩 발생하는 인도에서 아버지가 딸을 세계적인 레슬링 선수로 키운 '당갈', 남자들뿐인 고등학교 야구팀에서 '천재 야구소녀'로 불리며 투수로 활약하다가 졸업 후 프로팀의 벽에 막히면서도 좌절하지 않는 '야구소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신설된 여자 프로야구를 통해 여성들 사이의 우정과 갈등을 그린 '그들만의 리그'(1992), 여자 테니스 챔피언 빌리 진 킹이 전 월블던 챔피언인 노장 바비 리스와 세기적 테니스 성 대결을 벌여 승리한 내용을 다룬 '빌리 진 킹 : 세기의 대결'(2017) 등등. 이들 영화는 모두 실화를 소재로 한다.



영화 '당갈'에서 레슬링 국내 챔피언이었던 '마하비르 싱 포갓(아미르 칸)'은 자신이 따내지 못한 국제대회 금메달을 아들을 통해 얻고 싶다. 그러나 딸만 넷이 태어나면서 그 꿈도 물거품이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기타(파티마 사나 셰이크)와 둘째 바비타(산야 말호트라)가 자신을 괴롭히던 또래 남자아이들을 응징하는 모습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레슬링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두 딸은 레슬링이 싫었지만 14살에 결혼하는 친구에게서 놀라운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꾼다. "인도에서 딸은 치워질 뿐이야. 14살이 되면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가서 애 낳고 사는 거야. 너희 아빠는 너희를 시집가서 애나 낳으라는 짐작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 여기는 거야. 너희 아빠는 세상과 싸우고 있는 거야. 나도 그런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

다음 장 계속

곱지 않은 시선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두 딸은 아버지의 훈련에 힘입어 승승장구하며 잇따라 국내 챔피언이 된 데 이어, 큰딸은 슬럼프를 딛고 일어나 마침내 영연방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룬다. 아버지는 결승을 앞두고 큰딸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의 승리는 너만의 것이 아니고 여성은 열등하다는 인도의 문화에 대한 저항이며 인도의 여자아이들의 인권의 승리다.” 아버지는 또 딸들에게 “우리 딸들은 멋진 여자가 돼서 결혼할 남자를 직접 고르게 될 거야.”라고 강조한다.

인도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에 의해 살해되는 악습이 있다. 이른바 명예살인이다. 가족이 좋아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정략결혼을 거부해서, 심지어 성폭력을 당해서 등 이유도 다양하다.

영화 ‘야구소녀’에서 ‘주수인’(이주영)은 고교 야구팀에서 최고구속 134km와 공 회전력으로 주목받았던 유일한 여자 선수다. 고교 졸업 후 프로팀 선수로 야구를 계속하는 것이 꿈이지만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다. 수인의 공 속도가 여자로서는 놀랍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기도 하고, 여자가 무슨 야구냐는 편견 때문이기도 하다. 엄마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모두 꿈을 포기하라고 할 때 수인은 “저는 해보지도 않고 포기 안 해요.”라며 좌절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실존 인물인 안향미 선수는 1997년 한국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덕수정보고) 야구부에 입학했다. 99년 대통령배대회 준결승에서 선발투수로 등판, 데드볼로 출루시킨 후 마운드를 내려왔지만 첫 공식경기 기록을 남겼다.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갖췄지만 기숙사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입단을 거부당했다.

전미 여자 프로야구연맹은 1943년 창설돼 12년간 야구사에 남았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유명 남자 선수들이 모두 전쟁터에 나가자 위기에 빠진 프로야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눈요깃감’이었다. 하지만 선수들은 몸을 날리며 남자 선수들 못지않게 열심히 훈련과 경기에 임했다. 영화 ‘그들만의 리그’에서 여자 프로야구 선수들의 유니폼은 짧은 치마다. 강요에 의해 차밍스쿨에도 다닌다. 선수 이전에 숙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도쿄올림픽에서는 체조와 비치발리볼 등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노출이 심한 유니폼을 거부한 사례들이 나타났다. 여성에게 ‘미녀 선수’ 운운하다 지적받은 방송 사례도 일부 있다. 스포츠에서도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닌 선수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



다음 장 계속



영화 '빌리진 킹'의 배경 시기는 1973년, 그가 전성기를 누릴 때다. 신설 테니스대회 우승상금으로 남자는 여자의 8배인 1만2천달러를 받게 됐다. 킹은 “오늘 여자 결승 티켓이 남자와 똑같이 팔렸다.”며 남녀 상금이 같아야 한다고 외친다. 남자 테니스협회장은 “남녀에게 똑같이 주는 건 말이 안된다.”며 이유로 남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남자 경기는 더 흥미진진하고 빠르고 강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여자 선수들은 대회를 보이콧하고 여자테니스협회를 창설한다. 29세의 킹은 과거 테니스 명예의 전당에 오른 남성우월주의자인 시니어 챔피언 55세 바비 리스와 우여곡절 끝에 세기적 성 대결을 펼친다. 양측이 내거는 명분은 여권 신장을 위해와 여자의 열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리스는 “나도 여자 좋아한다, 침실과 부엌에 있을 때. 하지만 요즘 여자들은 안 끼는 데가 없다. 여성해방운동 막아야 한다.”고 우쭐댄다. 결과는 킹의 완벽한 승리.

그 후 세상이 달라졌다. 이 성 대결을 계기로 73년 전미오픈을 시작으로 2007년 Wimbleton까지 4대 메이저 테니스대회의 남녀 상금은 똑같아졌다. 2017년 BBC 보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 44개 종목 중 유도 육상 사이클 탁구 태권도 카누 승마 양궁 다이빙 수영 배구 스케이팅 등 국제대회 우승상금 남녀 동일 종목이 35개다. 축구 골프 크리켓 등은 아직도 상금 격차가 크다.

한편 호주 오픈 테니스 결승을 예로 들어 남자는 5세트 중 3세트, 여자는 3세트 중 2세트를 먼저 이기면 되는 경기여서 남자 우승자가 여자 우승자보다 평균 1시간 이상 더 뛰기 때문에 남녀 우승상금이 같으면 시간당 우승상금은 남자가 더 적다는 등 역차별 반론도 있다.

연봉과 관련, 세계적인 여자 배구 스타 김연경 선수는 팀 내 선수들의 연봉 총액 상한선인 샐러리 캡이 “여자 14억(향후 2년간 동결), 남자 25억(1년에 1억원씩 인상), 너무 차이 난다.”고 SNS에서 꾸짖었다. 여성과 남성 스포츠의 상금과 연봉 등의 적정선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경찰대의 남녀 체력장 기준을 세우는 것처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자 또는 남자라는 이유로 운동을 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수준을 개선하는 일이다. 그래야 성별에 관계없이 선수층도 두터워지고, 기량도 향상되고, 선택할 수 있는 팀도 많아지고, 관객도 늘어난다. 스포츠에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이 사라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한다.

[김주혁 미디어파인 주필]

가족남녀행복연구소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전 서울신문 선임기자, 국장

김주혁 미디어파인 주필 myhappyhome7@naver.com

학폭 선수, 앞으로 실업 프로팀은 물론 국가대표 활동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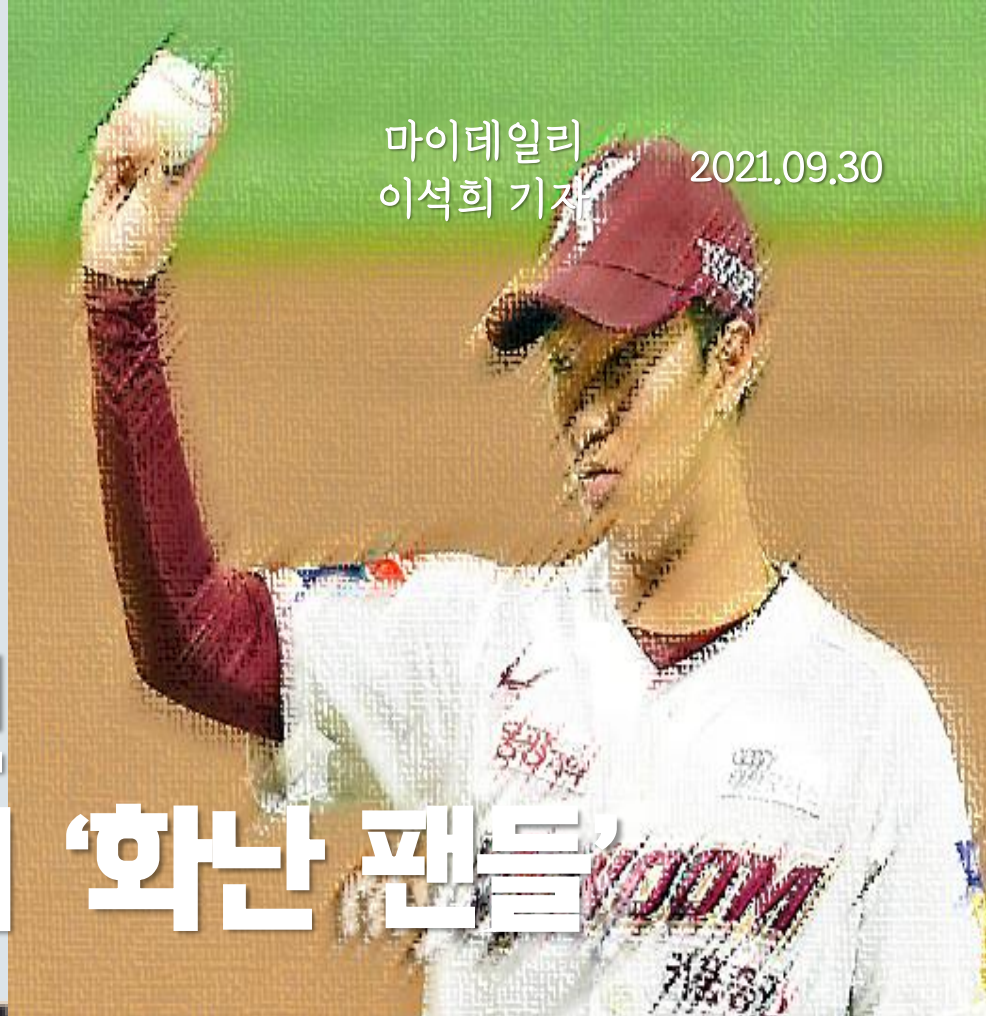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 선수들은 더 이상 프로스포츠단이나 실업팀 혹은 국가대표팀에서도 활동이 대폭 제한된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최근 체육계에서 불거진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신인 선수들은 프로스포츠 구단에 입단할 때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와 고교 학생기록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지난 4월 남자 골프 프로선발전과 지난달 야구·농구·배구 신인 드래프트 참가자들에게 적용됐다. 축구는 내년 1월 선수 등록, 여자 골프는 내년 3월 프로선발전부터 적용한다.

프로스포츠 연맹별로 학교폭력 관련 상벌 규정 개정도 이달까지 진행된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선수들을 제명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남자 농구, 배구, 여자 골프는 상벌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축구와 야구, 여자 농구, 남자 골프는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실업팀도 이달까지 표준운영규정을 개정해 학교폭력 시 선수선발 결격 사유와 제재 근거가 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도 이달 중 학교폭력, 인권침해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는 활동하지 못한다.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마이데일리
이석희 기자 2021.09.30

‘과거 학폭’ 이재영-다영, 안우진 징계할 수 없다... 정부 새 규정에 ‘화난 팬들’

“안우진은 징계할 수 없다고요?”

프로 야구팬들이 화가 났다. 아니 시쳇말로 뿔이 났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29일 열린 제 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뉴스 1보도에 따르면 이 개선방안은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프로스포츠구단은 물론 실업팀에서도 선수로 뛰지 못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프로 실업팀에서 뛰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대표로 뽑힐 수가 없다.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신인선수가 프로스포츠구단에 입단할 때 학교폭력 이력이 없다는 서약서와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가 종목별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4월 남자골프 프로선발전을 시작으로 배구, 야구, 농구가 이번 달 신인 드래프트부터 이를 적용했다. 축구는 내년 1~3월 선수등록 때부터, 여자골프는 내년 3월 프로선발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조항 첫머리에 ‘앞으로’라는 단어가 있다. 즉 과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를 본 프로야구팬들은 ‘소급적용도 폐지시켜 학폭 음주 방역수칙 위반한 안우진은 레전드네?’ ‘ㅋㅋㅋ이미 뛰고 있는 애들은 그냥 봐주기냐?’ ‘할려면 똑바로 해라 안우진은 뭘니까 지금이라도 퇴출시키세요’ ‘이미 저지른 선수들 구단에서 경기 뛰지 못하게 해야 학생 선수들 각성할텐데’라며 화를 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재영-다영 자매는 어떻게 되나요?’ ‘배구 쌍둥이처럼 외국으로 가면대지 ㅋㅋ’ 등 정부의 규정에 대해서 비아냥 거리는 팬들도 많았다.

게다가 선수들만 프로나 실업팀에 뛸 수 없게 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학교폭력을 조장하거나 수수방관한 감독, 코치 등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관계자는 “이 지침대로라면 안우진에 대해서 KBO가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며 “다만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의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로는 뛸 수 없다”고 밝혔다.



안산 선수 7점 쏘자 KBS 중계진

“최악이다”

KBS 스포츠 해설진이 '2021 세계 양궁선수권대회'를 중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27일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양크턴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리커브 여자 개인전 중계방송에서 논란의 발언이 나왔다. 이날 개인전 중계를 맡은 KBS 자회사 KBSN 소속 아나운서는 안산, 장민희 선수가 각각 7, 8점을 쏘자 “아, 이게 뭐냐”, “최악이다”라고 말했다.

KBS 시청자권익센터에는 'KBS sports 양궁 세계선수권 남자 캐스터는 선수들에게 사과하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7, 8점 점수를 쏜 선수에게 ‘최악이다’ ‘이게뭐냐’는 표현을 사용한다. 해설 자격이 전혀 없다. 선수들에게 너무 무례하다”며 “선수들에게도, 불쾌감을 느낀 시청자들에게도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혼성 경기에서 김우진 선수와 안산 선수를 동등한 선수가 아닌 동생을 이끌어주는 ‘오빠’라고 표현하더니 여자 개인전 중계에서는 안산 선수와 장민희 선수에게 선수 호칭을 뺀 채 안산과 장민희라고 반말했다”고 지적했다. 27일 올라온 청원은 하루만에 3476명의 동의를 얻었다. KBS 시청자 청원은 한 달 안에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답변한다.

청원진행중

[기타] Kbs sports 양궁 세션 남자 캐스터 선수들한테 사과하세요
청원자 문채*(uponthem***)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동의수 **3,476**



KBS는 앞서 도쿄올림픽 중계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KBS 해설진은 7월 25일 여자 탁구 단식 경기 중 “탁구장에 가면 앉아있다 나오는 숨은 동네 고수 같다”, “마흔한 살 많은 언니, 여우 같다”고 말해 입길에 올랐다.

8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정재용 스포츠국장은 “관성적 표현, 관계적 표현 등 중계진이 선의로 표현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중계할 때 인권 감수성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까지 배려할 수 있도록 제작진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충실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세대 아이스하키 코칭스태프의 선수들에게 욕설과 막말 논란

29일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부에 대해 감독대행 코치로부터 인권침해와 차별 등 피해 주장이 소속 A선수 측에서 민원으로 연세대를 비롯해 각 기관에 제기되는 과정에서 A선수 건 이외에 코칭스태프에 의해 일부 선수들이 막말과 욕설 등 A군과는 또 다른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연세대 아이스하키부의 코칭스태프 중 선수들의 체력관리를 맡고 있는 C씨는 지난 1월 중순경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전국이 감염확산 상태에서 B군(남, 20세)에게 ‘쓰레기’라는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해당 C씨는 “당시 코로나 시기에 외부에 있다가 감기기운이 있는 상태로 기숙사에 들어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선수가 감기기운이 있어서 ‘쓰레기’라는 욕을 했다”고 시인했다.

또한 C씨는 B선수 이외에 지난 5월 초 연세대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지상훈련과 체력훈련 전에 피지컬 테스트를 하면서 사이드스텝과 뛰는 동작을 함께하던 D선수가 다리에 부상을 당해 깁스를 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5월 중순경 해당 D선수에게는 ‘다리병신’이라는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대에 스포츠 선수들과 관련 막말과 갑질, 인권침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아이스하키 종목의 최강팀인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부 코칭스태프가 선수들에게 모욕적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이 같은 폭언에 코칭스태프들의 선수관리나 지도방식에 자격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해당 트레이너인 C씨는 B선수의 건에 대해서는 “당시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해명했으며 D선수 건에 대해서는 “워딩대로 말을 한다면 드릴말씀이 없다”면서 직역적인 해석에 당시 본인의 의도와는 달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이 건을 포함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답변과 반론요청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현재 아이스하키부와 관련, 제기되어있는 이 건을 포함한 모든 민원들에 대해 윤리센터에서 조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해명을 하고 있다.

이처럼 연세대 측 입장과 반론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관계 부서에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해명이나 반론을 꼭 해야 할 의무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과 일관되게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연세대 입장표명에 대해 일부 언론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쓰레기라는 막말을 들었던 B선수는 당시 그 충격과 자존감 상실 및 B선수 부모의 격노로 선수생활 포기를 결정했다가 코칭스태프들의 사과로 다시 아이스하키부에 복귀를 하였으나 이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지난 6월 자진해서 아이스하키부를 탈퇴한 상태다.

하지만 B선수를 비롯해 지난 몇 해 동안 아이스하키부를 탈퇴했던 선수들은 타 대학들이 선수들의 의견을 존중해 자진 탈퇴서를 받은 것과 달리 현재의 감독대행 코치와 연세대 체육위원회에서 탈퇴하는 선수들에게 스스로 자진해 탈퇴하는 것이 아닌 마치 해당 선수가 학교나 아이스하키부에 중대한 징계사유를 저질러 학칙에 의해 강제 탈퇴되는 ‘선수자격상실확인서’를 받아 이로 인해 받게 된 또 다른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의 논란에 향후 어떠한 대응을 하게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체육진흥공단은 경륜선수 소모품 취급 중단하고 처우 개선해야”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이 경륜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소모품 취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의 핵심 노동자인 경륜선수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1994년 시작한 경륜은 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레저 스포츠로 선수 7명이 출전해 순위를 겨루는 자전거 경주다. 현재 경륜선수 557명이 공단 산하 경주사업총괄본부의 관리와 지시, 감독을 받고 있다.

노조는 경륜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공단이 각종 공익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작 경륜선수들은 삶과 죽음의 문턱을 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단이 부패경륜 등 부당행위를 경륜선수에게 하고 있으며 갑질과 인권침해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선수는 경륜장 입소 후 퇴소까지 외출, 외박 없이 3박4일 동안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감금되고 군대도 쓰는 휴대전화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경륜선수는 노예가 아닌 노동자이자 국민이며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국 체육재정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체육진흥공단이 기금을 조성해 대한민국 체육 전 분야에 다각도의 지원사업을 펼치려면 핵심 노동자인 경륜선수의 처우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간 스포츠 소식

[단독] 경찰, 'OK금융그룹 배구단 고의패배 시도' 무혐의 결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2820060000449?did=NA>

[단독] 연세대 아이스하키부서 '집단 따돌림' 논란... 대한체육회에 진정서 제출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9/30/5BQSZPTNPVFMNAR4WM3EK7QG5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프로 선수들의 노출' 문제인가? 시대적 흐름인가?

<https://www.mhnm.com/news/articleView.html?idxno=85454>

학교폭력 선수 프로·실업팀서 못 뛴다...국가대표 자격도 박탈

<https://www.news1.kr/articles/?4447094>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 '쟁걸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81286629185040&mediaCodeNo=257&OutLnkChk=Y>

학교 운동부 지도자 '나쁜 손' 바로 해고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01009008&wlog_tag3=naver

인권위 "체육계 변혁" 요청...文 "육성방식 전면 재검토"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9_0001597172&cID=10201&pID=10200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후 '징계 완료' 단 2건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10011844003&sec_id=530101&pt=nv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